



진안여성단체협의회장이 취임식 개최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는 22일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장 이·취임식을 센터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정옥 군의장, 군의원, 여성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가운데 이·취임을 축하했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친 박미희 이임 회장은 임임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 덕분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며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길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희연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쌓아온 협의회의 명성과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단체 회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시보건소, '자기혈관 숫자 알기의 날'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시민들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돕는 '자기혈관 숫자알기의 날'을 운영한다.

'자기혈관 숫자알기의 날'은 시민들이 정기적인 기초 건강검사를 통해 본인의 혈관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소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료로 측정해 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의 1대 1 맞춤형 건강 상담이 이뤄진다. 시는 검사 결과 혈압이나 혈당 등이 높게 나온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병원 진료를 안내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안내하고 건강수칙을 제공해 시민들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전 회차에 빠짐없이 참여한 시민에게 연말에 건강 관련 물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증정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금동 갈비분가, 경로당서 갈비탕 나눔 행사

남원시 금동(동장 김봉례) 관계자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0일, 관내 금동 갈비분가(대표 한상용)가 농림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행복당 데이 갈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동 갈비분가는 정성껏 준비한 갈비탕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인부를 살피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봉읍, 성령총만교회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운봉읍은 관내 성령총만교회(담임목사 김사라)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운봉읍 착한가게 19호점으로 가입,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김사라 담임목사는 운봉 삼산마을 부녀회장을 4년째 역임 밀박초지위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성령총만 교회의 동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의정갈등 속 '중증화상' 대응

전북소방, 대전화병원 소방청장 표창 전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2일 의정갈등 상황 속 중증화상환자 응급의료 대응에 협력한 공로로 대전화병원 송창민 원장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전북에는 중증화상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 없이, 중증화상환자 발생 시 타 시도 화상전문병원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상환자 이송은 총 999건으로, 이 가운데 중증화상환자 145건이 전북의 지역으로 이송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중증화상환자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전화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의료 자문, 응급처치, 이송 과정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 5월 발생한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 사고처럼 중증화상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 현장에서의 실제 작동체계를 구축,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전화병원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이송된 중증화상환자 가운데 103명을 수용해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대전화병원이 전북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24시간 수용 가능한 화상응급실과 화상전문의 당직체계를 갖춘 중점 치료 의료기관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대전화병원 송창민 원장은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증화상환자 수용과 치료 연계를 적극 협조해 중증화



상환자에 대한 현장 대응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전북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중증화상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고 치료 사례를 공유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을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업무협약 참여 기관 확대, 의료기관 간담회, 교육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안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내 중증화상 전문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의료기관의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증화상환자 대응에 함께해 준 대전화병원과 송창민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경영중기협 전북연합회, 중기 지원사업 설명회

(사)한국경영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가 전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사)한국경영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회장 노갑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전북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유관기관 합동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방향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대출·관로·마케팅 지원 정책 △인력·노무·경영혁신 분야 주요 시책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맞춤형 지원사업 위주로 안내가 이뤄지면서 참석 기업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호응을 얻었다. 설명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상담도 이어졌다.

노갑수 전북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연합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진안 건축사모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진안군 건축사모임은 지난 21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이진 건축사사무소 김중원 건축사는 "진안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본업으로 바쁜 신 중에도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진안군 건축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철희 남원소방서장, 주택화재 사전 예방 활동

남원소방서는 남철희 서장이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주택화재 사전 예방을 위해 활동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령 주민 비율이 높고 소방 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일상 속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화재 사례를 활용한 간결한 설명 위주로 진행됐으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주택은 현장 안전점검도 병행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남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과 점검을 지속해 겨울철 주택화재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농정 실천 다짐

전북농협, 시군지부 사업추진 전략 회의

전북농협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군지부 중심의 전략 집담에 나섰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22일 도내 시군지부장과 지역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정활동 및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시군지부 사업추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농정의 핵심 축인 시군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을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군별 주요 농정활동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의 마음을 하늘의 뜻처럼 받든다는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을 전북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업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경영과 농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축유통 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농협 구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



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오도 다졌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직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철저히 지키는 한편, 지역별 농업 현안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농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군지부장의 현장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소투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군지부와 지역본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농정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 2026년 대학 신입생에 장학금 지원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시작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대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단은 오는 2월 27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 대상은 2026년 관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025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을 포함해 부 또는 모가 공고일 기준 1년 전인 2024년 12월 29일부터 신청일까지 정읍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 입학하는 자가 대상이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대신 일자리정책과에 구직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기간 이후에도 2026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사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집중 신청 기간이 지

난 뒤에는 정읍시 총청로에 위치한 정읍시민장학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세대 구성원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대학 합격 통지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 등이다. 만약 학생 본인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각각의 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화수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새로운 배움의 길로 나서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영산업,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는 신영산업(대표 이준영)이 22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영산업은 지난 2023년에도 고창시청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농민회,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쾌척

김제시는 새농민회(회장 정성우)가 22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농민회는 지난해에도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